



ISSUE BRIEFING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연구책임

조원지 책임연구위원

이슈브리핑 vol.304

연구진 권오현 전문연구원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요약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였음. 응답자의 95% 이상이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함
-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농업’을 주목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음. 반면, 기상재해, 대기오염, 기온변화 등 기후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인의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적음. 장시간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업인은 기후와 직결되는 농사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단기간(열사병)부터 장기간(정신건강문제)에 걸쳐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3년 6월 16일 제정·시행함
- 전북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개인 건강을 위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관련 법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군, 지역 등에서 개인의 건강을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임
- 실외에서 장기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농업인이 기후위기와 기후변화가 농업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적응을 위한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기후건강 리터러시(climate health literacy) 증진이 포함됨.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건강리터러시와 리터러시가 낮은 농업인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과 건강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둘째,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와 과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구성, 연구, 데이터 구축, 사업발굴 등을 위한 전문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또한, 농업, 농촌의 정책발굴 및 마련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성 질환(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수칙 홍보, 기후보건 교육 체계 구축, 기후변화성 질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업군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와 건강에서 질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생활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또한, 건강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1 기후 위기에 농업인의 건강권에 왜 주목해야 하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2035~2052년 사이 지구 평균기온이 1.5°C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농업'을 주목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루어짐¹⁾
 -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2.9% 수준인 20.4백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논 면적을 감소하고 타(他)작물 재배를 확대해 옴²⁾
 - 정부는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등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 등을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함³⁾
- 장마, 폭우, 태풍 등에 따른 농지침수, 시설붕괴, 농작물 재배지 변화, 병해충 피해 등이 농업생산 전반에 단기, 중장기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와 농업은 상호영향을 주고 있음
- 농업 분야에서 주로 농업인을 기후위기의 책임자 또는 피해자로 보았으나, 기상재해, 대기오염, 기온변화 등이 농업인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음은 간과되고 있음⁴⁾
 - 홍수 및 가뭄, 폭염, 폭설, 한파, 대기오염, 수온 변화 등에 의한 사망, 질병,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감염성 질환, 정신건강 등이 증가함⁵⁾
- 장시간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업인은 기후와 직결되는 농사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단기간(열사병)부터 장기간(정신건강문제)에 걸쳐 기후 위기로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매우 미흡함
- 이 글의 목적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는데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https://www.mafra.go.kr/2021plan/2691/subview.do>

2) 벼재배 : ('11) 7.0백만톤CO₂eq → ('17) 6.0백만톤CO₂eq

3) 온실가스 저감 농법(논물 얇게 대기, 논 간단 관개, 지능형 정밀살포 기술 개발 등)을 개발·보급, 인센티브 지급 검토 등

4) 채수미 외. (2023).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연구. 질병관리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한겨레. (2022). 기후변화가 인간을 병들게 한다... 병원성질환 58%에 악영향.(2022.8.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4681.html>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2 기후변화와 건강

- 기상현상은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등 노출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건강 문제도 있지만, 기저질환의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시점을 앞당기기도 함(채수미, 2023)
- 또한, 기후변화에서 병원체, 매개체 등을 통한 감염병 발생 외에도 기후변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음(채수미, 2023)
 - IPCC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기후현상이 영향을 미치는 건강문제에 정신건강문제를 포함하고 있음⁶⁾
- 기후변화와 건강은 폭풍, 가뭄, 홍수, 폭염 등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수질, 공기오염, 토지 이용변화, 생태계 변화 등의 요인 또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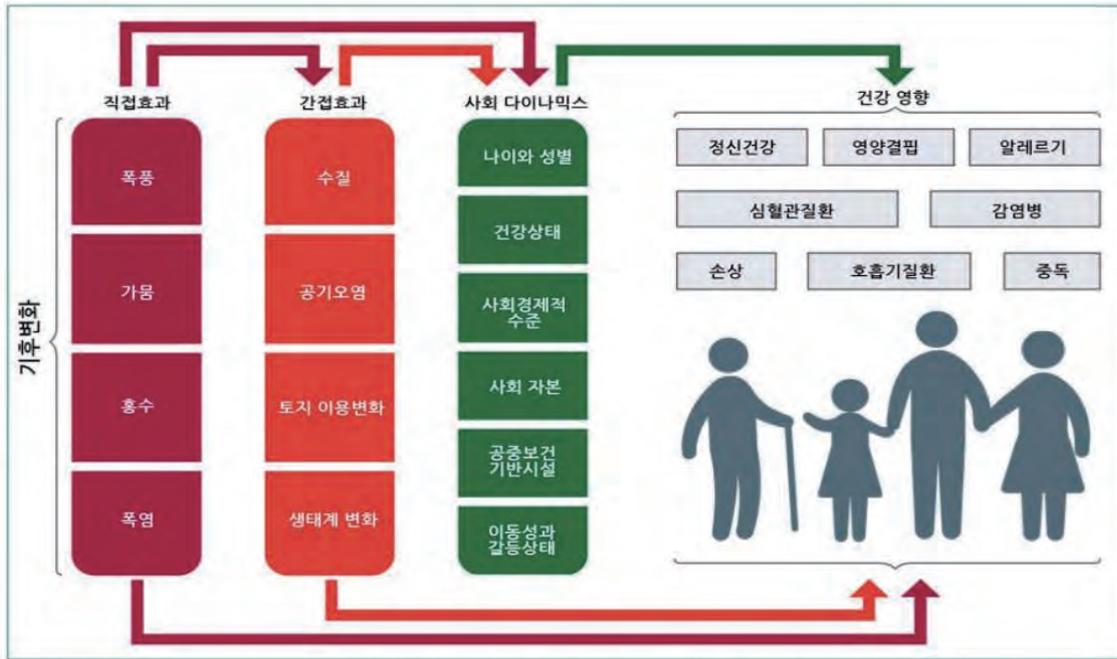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출처 : 질병관리청. (2022).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질병관리청.

6) 경험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격행동, 무기력, 불안 등을 경험할 수 있음(채수미 외, 2018)
 7) 최근 10년(2011~2020) 중 2018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으며,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방문자, 입원 환자, 사망자가 급증함(질병관리청, 2022)
 최근 8년(2013~2020) 중 2018년 전국 평균 한파일수가 12일로 가장 많았으며, 한랭질환으로 응급실 방문 및 입원이 가장 많이 발생함(질병관리청, 2022)
 최근 5년간(2015~2019)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초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초과사망과 심뇌혈관질환 초과사망자, 초과입원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간(2010~2019) 오존은 증가세를 보이며, 오존농도 상승에 따라 초과사망은 2배 증가함(질병관리청, 2022)
 최근 10년간(2010~2019) 진드기매개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은 불명확함(질병관리청, 2022)
 최근 10년간(2010~2019) 기온관련 장감염질환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지난 5년간(2015~2019)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캄필로 박테리움 감염병,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가 증가하였음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 나이와 성별,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자본 등 요인들과 기후변화의 복잡한 상호작용 (메카니즘)은 개인의 기후 민감 정도와 건강 위험 정도를 결정함



www.thelancet.com Published online June 23, 2015 [http://dx.doi.org/10.1016/S0140-6736\(15\)60854-6](http://dx.doi.org/10.1016/S0140-6736(15)60854-6)

출처 : 권호장. (2023).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적응대책. '충남의 기후위기와 건강' 연속세미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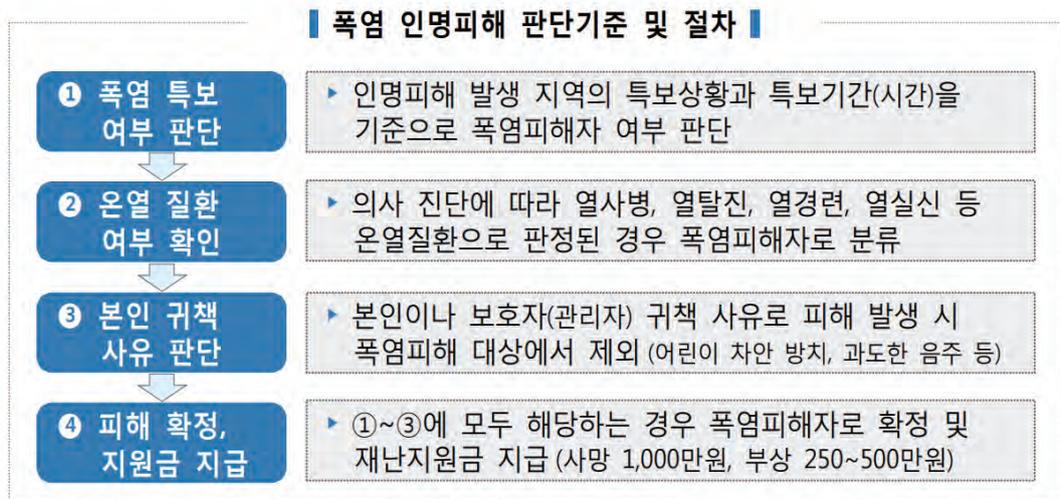
-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 등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력과 건강 위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의로 인프라와 실외에서 장시간 농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농업인은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되고 있음(명형남·강마야, 2023)
- 특히, 초고령사회인 농촌사회의 농업인의 다수가 고령자인 것을 고려해볼 때, 기후변화가 농업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3 기후 위기와 건강 관련 법률 및 정책

○ 2018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을 자연재난(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포함하고(제3조),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온열질환⁸⁾ 여부를 파악하고 귀책 사유를 판단한 후 최종 인명피해를 확정함

-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 가목에 근거해 ‘자연현상(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출처 : 행정안전부. (2018.12.03.).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본법」은 2017년부터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가 국가 의무로 자리 잡으면서 보건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함

-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시행령 제13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신설됨

- 기후보건영향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개 영역(기온, 대기질, 감염병) 및 31개 지표를 중심으로 응급실 감시체계, 건강보험자료 분석 및 예측 모델링 등을 통해 최근 10년간의 영향을 평가함

8) ‘온열질환’은 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이 있음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표 1]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평가영역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간
폭염	감시지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 체계 신고 환자 수, 사망자 수	'11~'20
		온열질환 사망자 수	'10~'19
		온열질환 응급실방문자 수	'14~'19
		온열질환 입원환자 수	'10~'19
	추산지표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	'10~'19
		폭염으로 인한 초과 응급실방문자 수	'14~'19
폭염으로 인한 초과 입원환자 수		'10~'19	
한파	감시지표	한랭질환 응급실감시 체계 신고 환자 수, 사망자 수	'13~'20
		한랭질환 사망자 수	'10~'19
		한랭질환 응급실방문자 수	'14~'19
		한랭질환 입원환자 수	'10~'19
	추산지표	한파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	'10~'19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응급실 초과방문자 수	'14~'19
한파로 인한 의요기관 초과입원자 수		'10~'19	
대기질	추산지표	초미세먼지 단기노출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	'15~'19
		초미세먼지 단기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초과입원자 수	'15~'19
		초미세먼지 장기노출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	'15~'19
		오존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	'10~'19
감염병	감시지표	뎅기열 신고 환자 수	'10~'19
		웨스트나일열 신고 환자 수	'11~'19
		쯔쯔가무시증 신고 환자 수	'10~'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고 환자 수	'13~'19
		라임병 신고 환자 수	'10~'19
		콜레라 신고 환자 수	'10~'19
		장티푸스 신고 환자 수	'10~'19
		세균성이질 신고 환자 수	'10~'19
		비브리오 패혈증 신고 환자 수	'10~'19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0~'19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5~'19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0~'19	
추산지표	장감염질환으로 인한 초과 이환자 수	'14~'19	

출처: 질병관리청. (2022).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질병관리청.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0조에 근거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국가 비전으로 지난해 4월에 발표함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3.4.).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6개의 이행기반 강화정책 중 ‘기후 위기 적응’에서 핵심과제는 1) 기후감시·정보제공, 2) 극한기후 대응, 3) 취약계층 지원임
- 기후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 기후 위기 취약계층 주거·생활공간 맞춤형 적응력 제고, 2) 기후 위기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3) 저소득·노인 등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을 세부 과제로 하고 있음
- 특히, 기후 위기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상 안전 확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 ‘폭염·한파 시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의 안전관리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활동 시간 조정·단축 등 보호 방안 마련’, ‘환경보건이동학교 등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운영’, ‘기후 위기 재난 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트라우마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임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 2021년 3월 정부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시행하였으나,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2023년 6월 22일 3.5차 대책인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함
 -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대책은 1)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2)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3)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4)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음
 -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기후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적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이행주체별·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강화 등을 할 예정임

비전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4대 정책	① 과학적 기후 감시·예측 및 적응 기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② 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③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④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적응 거버넌스 강화 	

출처 : 환경부. (2023.6.21.).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보도자료)

-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이 속한 여건, 환경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실외활동이 많은 산업 중 하나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에 노출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농업인의 기후위기 적응과 이에 따른 삶의 질에 주목할 필요로 정책적 관심과 대응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4 국내외 기후 위기 건강정책 사례

- 미국의 경우. 2021년 「기후변화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Climatic Change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은 기후변화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보건부는 이 법률에 따라 국가행동계획(National Strategic Action Plan)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함⁹⁾
 - 해당 법률에서는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문제를 1) 식품성, 수인성, 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2) 공기 및 독성 노출에 따른 폐질환, 3) 극한 온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4)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악화, 5)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ic Change Act)」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후변화위험평가(Climatic Change Risk Assessment, CCRA),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 적응보고권한(Adaptation Reporting Powers, ARP)을 개발·시행하고 있음(장은혜, 2014)
 - 기후변화위험평가는 매 5년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적응행동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11개 영역¹⁰⁾ 중 건강(Health)이 포함되어 있음
 - 2050년 탄소감축 제로를 목표로 「기후변화법(Climatic Change Act)」을 2019년 6월에 개정하며, 탄소 중립을 위해 10대 분야¹¹⁾를 설정하고 보급 확산 주력 5개 분야와 연구개발 투자 주력 5개 분야를 제시함
- 영국은 「2022 건강관리법(Health and Care Act 2022)」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보건 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역할을 제시함(김광점 외, 2023)
 - 국가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위탁자에게 넷제로 배출목표를 제시하고, 2021 환경법 내의 목표를 제시 하며, 2008년 기후변화법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을 관리하는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 충청남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22년 10월 18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됨
 - 해당 조례는 제14조(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9)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271/text?s=1&r=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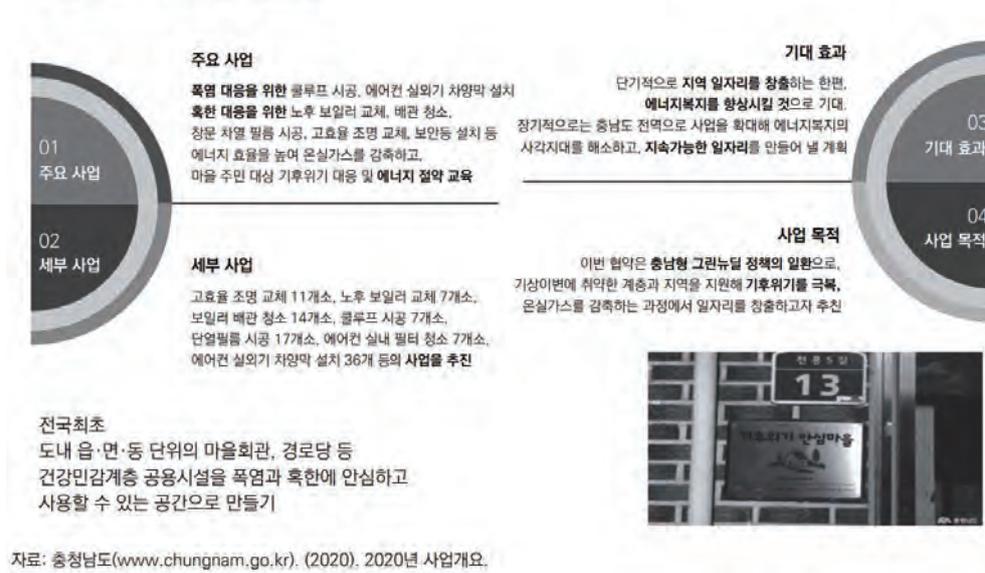
10) 농업,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건조환경, 사업·산업·서비스, 에너지, 홍수·연안침식, 임업, 건강, 해양 및 수산, 교통, 물

11) 1) 해상 풍력 고도화, 2) 저탄소 수소개발, 3) 원자력 연구개발, 4) 무탄소 이동수단 가속화, 5) 대중교통 친환경화, 6) 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7)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8) CCUS 투자, 9) 자연보호, 10) 혁신기술 투자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 건강 부문 과제로 취약계층 기후 영향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 강화¹²⁾,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접근성 제고¹³⁾, 감염병 대응 및 환경성질한 예방관리 강화¹⁴⁾ 3개 전략, 13개 과제를 도출함(여형범 외, 2022)

기후위기 안심마을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3년 6월 16일 제정·시행함

- 해당 조례 제3조4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제29조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 건강을 위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관련 법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 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산업, 지역별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재함

○ 지역적, 개인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학술적, 정책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12) 적응 관련 최첨단 지식 추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옥외·야외 노동자 폭염대책 수립 시행,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3) 공공의료 확충 및 보건의로 인력 처우 개선, 의료 취약계층에 특화된 119 구조 서비스, 도서산간 및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이동진료 능력 제고
 14)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염병 예방 홍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및 교육·홍보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5 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안

-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서 농업인의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후건강 리터러시(Climate health literacy)¹⁵⁾ 제고

- 농업인이 기후위기와 기후변화가 농업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적응을 위한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기후건강 리터러시(climate health literacy) 증진이 포함됨(최슬기, 2023)
 - 미국 국제변화연구프로그램(United State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은 ‘자신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가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음
 - Limaye et al.(2020)은 ‘개인이 기후변화와 인간의 건강에 대한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함
- 개인의 기후건강 리터러시 제고를 위하여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음(최슬기, 2023)
 - 국제 의료계열 학생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은 의료계열 학생의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훈련 매뉴얼을 개발·제작하여 배포함
 - 미국 국립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NIEHS(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는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헌을 제공하는 웹사이트(Climata Change and Human Health Literature Portal)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건강 리터러시와 리터러시가 낮은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와 다양한 형태(영상, 이미지 등)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과 건강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15) 리터러시를 UNESCO는 ‘다양한 맥락과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출하고, 의사소통하고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기후건강 리터러시는 기후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가 통합된 개념임(최슬기, 2023)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건강정보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이와 함께, 농업인의 기후건강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이 중요함

기후변화가 농업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체계적·지속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가 2022년 시행됨
- 결과가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와 과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구성, 연구, 데이터 구축, 사업발굴 등을 하는 전문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 현재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일반 국민 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 산업,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집단을 세분화하여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인프라 구조와 기반이 부족하고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인구밀도가 높아 농촌의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 역량은 도시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보건영향평가에서 지자체의 기후위기 건강 부문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농업, 농촌의 정책 발굴 및 마련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여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 정책 추진

- 현재 건강정책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건강관리,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¹⁶⁾
-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성 질환(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수칙 홍보, 기후보건 교육 체계 구축, 기후변화성 질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16)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 폭염, 한파로 인한 질환자 발생 추이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건강 영향과 건강보호 관련 예방수칙을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기후위기에 의한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한 의료계, 지자체, 감시체계 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하고, 기후변화성 질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함
- 이러한 정책은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군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또한 공유,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통합되어야 함
- 기후변화와 건강에서 질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실생활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농업·농촌 분야의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건강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 반영할 수 있어야 함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참고문헌〉

- 김광점 외. (2023).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ESG활동모델 개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명형남, 강마야. (2023).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진단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 충남연구원.
- 여형범 외. (2022).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충남연구원.
- 장은혜. (201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질병관리청. (2022).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질병관리청.
- 채수미 외. (2018).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방안. 질병관리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외. (2023).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연구. 질병관리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2023).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국가 정책의 현재와 미래. 보건복지포럼, 320, 36-49.
- 최슬기. (2023). 기후위기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기후 건강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20, 66-80.

iSSUE
BRIEFING vol.304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